

고려대학교 철학과 70년*

—서양철학

김창래 · 손병석**

1946년 8월 설립된 고려대학교 철학과가 이제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세상이 일곱 번 바뀌고 새로운 세대가 세 번을 등장한 셈이다. 역사에 새로운 것은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선배들의 전통을 충실히 이어간 후배들의 노고 덕분인가?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달라져도,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을 두루 포괄하며 보편적 진리를 추구해온 고대 철학과와 정신’은 70년의 시간을 두고

* 이 글은 199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신일철 교수가 집필한 「고대 철학과 50년의 회고 — 서양철학」(『철학연구』, 제19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편, 1996, pp. 389~396)에 기초하고 있다. 고대 철학과와 초기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필자(김창래)로서는 전적으로 위의 글에 의존하며, 본인이 직접 목도한 1981년 이후 26년의 역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래서 출처 없이 쪽수만 밝힌 모든 인용은 신일철 교수의 탁월한 글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혀 둔다(쪽수는 본서의 쪽수임). 이렇게 해서 2006년에 「고려대학교 철학과 60년 — 서양철학」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10년이 더 지난 후 손병석 교수가 가필하여 70년의 역사가 완결되게 되었다. 손병석 교수가 가필한 부분은 ‘IV.2 제3세대 2단계(2002년~2007년)’의 마지막 단락과 ‘IV.3 제3세대 3단계(2008년~현재)’의 처음 세 단락이다. 최종적인 정리는 본인이 했다.

**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

면면히 이어져 왔다. 70년의 시간을 지켜온 고대 철학과의 정신이 700년, 7000년을 두고 생생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70년간의 고대 철학과의 역사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I. 철학과 설립과 초기 역사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은 1905년 법과·상과로 출발하여 기실 순수 학문 연구 기관으로서의 모습은 갖추지 못한 채, 그 이름 처럼 전문학교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1946년 철학과를 위시한 문과대학 4개 학과(철학, 국문, 영문, 사학)가 개설되어, 이른바 중세 대학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자유교양(*ars liberalis*)이 강의 되고, 순수 학문 연구가 시작되면서, 보성전문은 비로소 명실상부한 대학(*university*),¹⁾ 즉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고대 철학과의 설립은 해방 후 출범기의 한국 철학계를 대표하던 몇 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일본 경도대학에서 … 헤겔 철학과 실존 철학을 공부하고… 보전에 온 이종우 선생”, “북경대학에서 철학을 연구하고 귀국하여 보전에 온 이상은 박사”,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보전에 부임한 박희성 선생”(8)이 바로 그분들이다. 철학과는 이렇게 세 분의 전임교수와 함께 출범하였다. 그러나 철학과의 초기 역사와 관련하여 우리는 1933년 보전에 부임하여 “교양과정으로 철학개론을 교수”하였고, “『普專論集』에²⁾

1) 신일철 교수는 고대 철학과의 탄생을 “유니버시티의 심장부가 갖추어진”(7) 일에 비한다.

2) 『보전문집』은 1933년 보전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던 현상윤, 철학을 담당 하던 안호상, 심리학을 가르치던 오천석이 주가 되어 조직한 보전학회의 논문집이다(윤사순, 이광래, 『우리 사상 100년』, 2001 서울, 현암사, 324쪽 참조). 물론 그 이전에도 대학의 학회와 학회지가 있었으나, 전부 “한국인의 논문이 실릴 수 없는 일본인 학자만의 학회였고 학회지였는

헤겔 철학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던”(7) 안호상 박사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³⁾ 이 분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불안하던 상황에서 고대 철학과를 출범시켜, 1948년 9월부터 예과를 마치고 철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을 상대로 철학 교육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출범한 고려대학교 철학과는 1950년 5월 25일에 6명의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었다.⁴⁾

데”(같은 책, 348쪽) 반해, 『보전논집』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이 한국인”(같은 책, 349쪽)이어서 이 논집이야말로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대학 학회지라고 할 수 있다.

- 3) 안호상 선생은 1929년 독일 예나대학에서 「헤르만 로체의 관계 문제를 위한 의미」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윤사순, 이광래, 같은 책, 318쪽 참조), 1933년 보성전문에 부임했다. 그는 통상 일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이데올로그로만 알려져 있지만(오상무, 「근대 한국의 공사관. 국가철학을 중심으로」, 임흥빈, 『새로운 공적 합리성의 모색』, 2005, 서울, 철학과 현실사, 446쪽 참조), 동시에 “현대식 철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초창기 극소수 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철학에 관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저술을 남기기도”(같은 곳) 했다. 1932년 철학 특집호로 기획된 『신동아』 11월호에 게재한 「스피노자의 우주관」, 『보전논집』, 1집에 실린 「헤겔의 철학의 시초와 논리학의 시초」, 2집에 실린 「물심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그리고 1942년에 출간된 『철학강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윤사순, 이광래, 같은 책, 339, 349 참조). 특히 『철학강론』의 출판은 민족 혼의 고수라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한치진의 철학 개론서 조선어 출판으로 인한 구속 사건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공포 분위기”(같은 책, 358쪽)에서 안호상 선생은 자신의 말대로 “큰 모험으로 『철학강론』을 우리말로써 출판”(같은 책, 359쪽)했기 때문이다. 선생은 초대 조선철학연구회 회장과 초대 문교부장관을 지냈고 그 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학술·사회 활동을 폈다.
- 4) 한편 철학과 51학번으로 철학과와 초기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신일철 교수의 기억에 의하면 고려대학교 철학과 제1기는 “6명”이었다. 그러나 불안한 사회 여건으로 인해 이들이 모두 성공적인 졸업에 이르지지는 못했다. “납치, 입대” 등으로 입학생들은 “이산”되었고, 단지 “한두 명”(8)만이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의 연도별 졸업생 통계에는 철학과가 1950년에 학사 6명을 배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필자는 신일철 교수의 전언이 그저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아마 —신

철학과 초기의 역사는 출범기의 희망과는 달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예기치 못한 전란으로 휴교가 불가피했고, 철학과 역시 피난 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교육에의 열정만은 식지 않아, 이내 대구 최재희 교수의 자택에 “임시 사무실을 열어” 철학과 재건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곧 “대구시 변두리 논밭 지대인 원대동”에 임시 교사를 열어 개강할 수 있었다. 신일철 교수의 회고에 의하면 “멀리서 들려오는 전란의 포화 소리를 들으며 개강한 피난 교사에서 교수나 학생들은 유달리 학구열에 불탔다”(8). 예나의 환란을 바라보며 『정신현상학』을 집필하던 헤겔의 정신으로,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던 전쟁터에서 『논고』를 쓰던 비트겐슈타인의 진지함으로 고려대학교 철학과 제1세대의 교육과 연구가 시작되었다.

II. 고려대 철학과 제1세대(1946년~1950년대 말)

고려대학교 철학과, 서양철학의 제1세대 교수진은 이종우, 박희성, 최재희, 손명현, 그리고 김준섭이다. 이 분들은 모두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당대 한국 최고의 학자들이었다. 이 분들의 학문적 업적과 인간적 향취를 하나하나 회고해 보기로 하자.

무엇보다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대구의 임시 교사에서 이종우 교수가 “전교생을 상대로 했던 ‘철학개론’”(8)일 것이다. 이 강의는 개론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여 수강생의 태반이 낙제할 정도로 난해했다고 한다. 또한 이종우 교수가 담당한 철학과와 ‘헤겔철학원강’에서 학생들은 헤겔의 “『엔찌클로페디』를 독일어로 강독”해야 했는데, 이 역시 수강생 중 “단 2명만이 합격”할 수 있었던 “엄한 성적 평가”(9)였다고 한다. 이 정도의 강의가 서양

일철 교수의 기억이 방증하듯— 최초의 졸업생들이 우여곡절을 통해 어렵사리 학사학위를 취득했을 것이다.

철학 수입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당시 고려대학교 철학과와 학문적 수준이 어떠한지를 쉬이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종우 교수는 1933년 한국 최초의 철학회인 ‘철학연구회’의 창립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 창간된 『철학』 제1호에 「외계 실재성의 근거」, 이듬해에 출판된 제2호에 「생의 구조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실었다.⁵⁾ 후에 고려대 문리대학장, 부총장,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까지 지냈으며, 저서로는 『철학개론』(1953), 『하늘과 땅 사이에』(1971)가 있고, 「역사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 「칼 야스퍼스의 철학적 신앙」 등 다수의 연구 논문을 남겼다.

박희성 교수는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주관주의와 직관(*Subjectivism and Intuition*)」이라는 논문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46년부터 본교에서 영미철학을 강의했는데, 특히 그 “영어 구사 능력의 우아함”과 “철인적 인격의 훈향으로 고대생 전체의 이상적 존재”였다고 한다. 일본을 통해 수입된 독일철학이 한국 철학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선생은 “홀로 영미철학의 신개지를 개척하여, 우리나라 영미철학의 태두가 되신”(9) 분이다. 학위논문 제목에도 암시되어 있는 바이지만, 박희성 선생에게 가장 중요했던 철학적 주제는 흄의 회의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⁶⁾ 미국 프린스턴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의 초빙교수를 지냈고, 고려대 문리대학장을 지내기도 했다. 선생은 1968년 정년 이후에도 고려대학교 철학과와 명예교수로 줄곧 대학원 강의를 하실 정도로 정력적인 분이셨다. 특히 선생의 팔순을 기념하여 발간된 『철학연구』⁷⁾에 「정종화 교수의 “차탈레이 부인의 애인”의 경우」를 읽고」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노력장을 과시하기도 하셨다. 1988년에 작고하시며 적잖은 부동산을 후학들의 학업을 위해 남기셨다. 이를 근간으로 격암장학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⁸⁾

5) 윤사순, 이광래, 같은 책, 340~344쪽 참조.

6) 같은 책, 323쪽 참조.

7) 제6집, 고려대학교철학회 편, 1980.

曙宇 최재희 교수는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칸트 연구의 선구자적 인물이다. 우리말만 가지고는 도무지 칸트의 난해한 철학에 접근할 수 없을 당시 선생께서는 『실천 이성 비판』과 『순수 이성 비판』을 번역하여 칸트 연구의 새 길을 열었다. 전자가 번역·출판된 것이 1957년이고 후자가 1972년이니 각기 50년과 30년을 한국에서 칸트 철학에로의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이 난해한 두 권의 저서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수십 년간 읽힐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최재희 선생이 “견지해” 온 특유의 “꼼꼼하게, 정밀을 기하는 학구 태도”(10) 때문일 것이다. 선생께서는 그 외에도 칸트의 『프로레고메나』,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한다』, 셸러의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도 번역, 소개하였고, 『윤리학 원론』(1958), 『사회철학』(1963), 『헤겔의 철학 사상』(1972), 『칸트 철학 연구』(1985), 『헤겔 철학 연구』(1985), 『칸트의 생애와 철학: 칸트 연구 입문』(1990) 등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학술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⁹⁾

-
- 8) 박희성 선생은 특히나 “세계와 인생을 보는 혜안”이 탁월한 분이었다고 한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과 관련하여 친이스라엘적 고정관념이 지배할 당시 “피해자로서의 아랍”의 입장을 날날이 설명하며 “학생들의 좁은 시야를 깨뜨리고” 사고의 균형을 잡아주었다는 신일철 교수의 회고는 고대 철학과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화이다. 그 곧은 성품과 “반골적 품격”은 선생의 “兒名인 꺾바위”, 그리고 “투인 격巖”(9)에도 잘 드러나 있다.
- 9) 曙宇의 저서 출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다. 최재희 교수는 자신의 ‘논리학’ 강의를 수강하며,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던 철학과의 한 학생(51학번)에게 필기한 노트를 “원고지에 옮겨 오라고” 했고, 바로 그 원고가 최재희 교수의 『논리학 개론』 교재로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그 51학번 학생이 바로 후에 “曙宇 哲學賞 제1회 수상자”인 신일철 교수이니, 두 분의 학문적 인연이 참으로 “각별”하다. 물론 최재희 교수는 자신의 『논리학 개론』 서문에 “고대 철학과 申一撤의 원고”라고 명기해 주었고, 51학번 철학과 학생에게는 이 사실이 “오래도록 자랑스럽게 느껴졌다”(10)고 한다. 필자의 지도교수였던 신일철 선생께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며 曙宇 선생께 입은 學恩을 그리워하시던 모습을,

1951년 9월 피난지 대구에서의 개강 후 고대 철학과는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재학생 수는 24명에 불과했지만, 12월에 대학원에 철학과 석사과정을 개설했고, 52년 12월에는 문과대학이 문리과대학으로 개편되면서 과의 명칭도 문리과대학 철학과로 바뀌게 되었다. 53년 8월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 철학과는 마침내 2년간의 피난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당시의 감격을 신일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6·25 휴전으로 還都가 시작되어 판자집 대구 피난 교사를 떠나 고대도 서울로 돌아 왔으나 그러나 그때까지도 석탑의 본 교사는 미 제5공군 특수부대가 점유하고 있어서 임시로 중앙학교에서 셋방살이를 했다. 兪鎮午 총장을 비롯해서 모든 교수가 유엔군 사령부를 상대로 교사 반환 교섭을 할 때 박희성 교수가 장문의 영문 교사 반환 청원서를 만들었다고 기억된다. 드디어 본 교사 반환의 날이 왔다. 미 제5공군의 교수 대표 1명과 학생 대표 1명이 본교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학생감 鄭在覺 교수를 모시고 학생 대표로 본인이 갔다. 우아한 석탑의 본 교사 앞에서 인수식을 했을 때의 그날의 감격은 한평생을 잊지 못한다”(10f.).

그렇게 고대 철학과는 다시 안암의 동산으로 돌아왔다. 전쟁의 흔적이겠지만 “늙은 복학생들이 돌아와” 학생들 간의 나이 차이가 매우 커졌고, “애기 아버지 학생들과 현역 학생이 섞여서” 강의가 진행되었지만 철학에 대한 열정 만큼은 마치 “열화와 같이 뜨거웠다”(11).

손명현 선생은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분으로 1955

까마득한 후배의 눈으로 바라보던 것이 1996년. 이제 10년의 세월이 더 흐른 후 신일철 선생까지 복망에 모시고 내가 다시 후대에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육중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하다. (이 글이 쓰여진 것은 2006년이다. 물론 10년의 시간이 더 흐른 지금 세월의 무게는 더욱 육중해졌다.)

년부터 고대 철학과에 재직했다. 줄곧 고대 희랍철학 연구에 몰두하였고, 강의도 희랍철학과 고전어를 맡았다. 지금도 매학기 개설되는 고려대학교의 라틴어 강의는 손명현 교수가 “시작한 것”(11)이다. 1946년 8월 해방 첫돌을 기념하여 발간된 『학술』 제1집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귀납법의 문제」라는 손명현 선생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이것은 “해방 후 서양철학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일 뿐더러, “아리스토텔레스의 귀납법이 후세에 발전된 확률론에 의해 비로소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브렌타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해방 당시 우리 학계의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¹⁰⁾라고 한다. 이렇듯 손명현 선생은 해방부터 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희랍철학 연구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¹¹⁾ 이렇게 희랍철학 연구에 몰두하셨지만, 당신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는 브렌타노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었다고 한다. 위의 논문이 브렌타노의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진지했고, 그 성과도 다대했지만 손명현 선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잊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철인적 품모”와 “질박한 생활 속에서 오직 학문 연구에만 정진하는 학구적 인격”(11)이다.¹²⁾ 『문화의 창조』

10) 윤사순, 이광래, 『우리 사상 100년』, 372쪽.

11) 같은 책, 427쪽 참조.

12) 손명현 선생의 “철인적 품모”를 전해주는 두 개의 일화가 있다. 신일철 교수는 손명현 교수의 와세다대학 동창인 松原 교수로부터 전해들은 일화를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松原 교수는 조선서 온 孫 교수와 같이 프랑스어 반에서 친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두 사람의 귀가 방향이 같아서 전차를 타고 가자고 했더니 손 교수가 사양했다는 것이다. 孫 교수 자신은 전차를 안 타고 걸어 다녀 그렇게 축적한 돈으로 책을 산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松原 교수는 친구 손 군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선의 永東甲富 집안이라고 들었다고 썼다. 松原 교수는 진실한 學究派 同窓을 40년이 지나서도 잊을 수가 없어 회생기로 남겼다”(11). 또한 “일본의 프랑스 철학 권위자인 나쓰나미 진자부로(松浪信三郎)는 1973년 10월 『쇼펜하우어 전집』 월보 11호에 『쇼펜하우어와 만난 사나이와의 만남』”(윤사순, 이광래, 『우리 사상 100년』, 325쪽)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그런 즈음에 나는 쇼펜하우어 철학에 심취

(1957), 『철학입문』(1958), 『철학논구』(1974) 등의 저서를 남겼고, 아리스토텔레스 『시학』(1979)의 번역은 지금도 그 탁월성이 인정되어 학술적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 땅에 소개한 업적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한 김준섭 교수가 1947년에 고대로 부임해 “영미철학, 논리학”을 강의하고, “기호논리학을 전파”하는가 하면,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소개”하여 큰 반향을 얻기도 했다.¹³⁾ 무엇보다 김준섭 교수의 학문적 업적 중 가장 큰 것은 1949년의 『서양철학사』의 출간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철학 통사”¹⁴⁾이기 때문이다. 김준섭 교수는 그 외에

하고 쇼펜하우어에 끌려 철학의 길에 들어선 사나이를 만났다. 만났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 그 사나이의 쇼펜하우어 열에 말려들어 1년 남짓 쇼펜하우어와 사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 그는 독일어 공부 위해 읽기 시작한 쇼펜하우어에 매료되어 목하 그 전집을 독파하기 위해 매일 쇼펜하우어만 붙들고 늘어졌다. 청년 시대에는 흔히 그런 허세가 있으므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였으나 점차 깊이 사귀어 보고 사실 그대로인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손 군과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지망은 프랑스 문학이었지만 철학으로 바꾸었다. 손 군과 같은 공부꾼을 친구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다”(윤사순, 이광래, 같은 책, 326쪽에서 재인용).

- 13) 신일철 교수는 김준섭 교수의 강의에서 화이트헤드의 『과학과 현대세계』(*Science and modern World*)를 강독하며 “화이트헤드의 철학에 매료”되어, 후에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의 철학」(고려대 석사논문, 1956), 「화이트헤드의 사건 개념」(『철학연구』, 고려대학교철학회 편, 제1집), 「화이트헤드의 자연관」(『철학연구』, 고려대학교철학회 편, 제2집), 「화이트헤드의 미학」(『철학연구』, 고려대학교철학회 편, 제4집) 등의 논문을 쓰기도 했다. 특히 네 번째 글은 “유기체적 자연론을 형성하는 데에 화이트헤드의 시인적 직관과 미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었는지, 또는 왜 화이트헤드가 유기적 자연을 그토록 아름다운 통일을 이룬 미적 조화의 세계로 간주했는지”(윤사순, 이광래, 같은 책, 391f.)를 밝힌 탁월한 논문이었다. 이 모든 학문적 계승은 김준섭 교수의 강의에서 발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14) 윤사순, 이광래, 같은 책, 371. 이 책은 “고대철학사에서 현대철학에 이르기까지 서양철학의 전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또 “당시의 충분하지

도 『실존철학』(1958), 『현대철학』(1958), 『철학의 제문제』(1964), 『윤리학』(1966), 『철학과 논리의 연구』(1975), 『논리연구』(1985) 등의 저술을 남겼고, 한국철학회 회장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을 지냈다. 같은 시기에 고대 철학과에는 “일본 상지대학에서 철학과 교육학을 전공하고” 후에 “고대 교육학과를 만든”(12) 왕학수 교수가 강의하고 있었고, 연세대의 김형석, 전원배 교수가 출강하기도 했다(12 참조).

고려대학교 철학과 제1세대가 이룩한 무수한 학적 중에서 강조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철학연구』(고려대학교철학회 편)의 창간일 것이다. 『철학연구』는 1955년 12월의 제1집을 신호탄으로 하여 『철학연구』의 발간이 고려대학교 철학과 부설 철학연구소로 이관되던 1996년 이전까지 18집에 달하는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이 중에서 고려대학교 철학과 제1세대의 학문적 업적이 게재된 것은 1960년에 발간된 제3집까지이다. 여기에 수록된 제1세대의 주요한 연구 업적은 제1집에 손명현 교수의 「뮤토스와 로고스」, 최재희 교수의 「자유 의 근거와 현대」, 제2집에 손명현 교수의 「논리실증주의」, 제3집에 손명현 교수의 「회의사상의 고찰」, 박희성 교수의 「위대한 비극 — 4·19학생운동의 의의」, 이종우 교수의 「정치권력과 종교사상」 등이다. 4집 이후의 주 필진은 고대 철학과 제2세대이나, 이미 1집부터 2세대 철학자들의 글이 실려 있어¹⁵⁾ 이미 이때가 고대 철학자가 탄생 10년을 넘기며 첫 번째 세대교체를 맞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정보와 자료 사정에도 불구하고 현대 편에서는 독일의 신실재론, 현상학과, 생철학, 실존철학, 심지어 소비에트연방의 철학까지 망라한 점이 이채롭다”(같은 곳).

- 15) 제1집에 실린 김영철의 「자기반성과 자기해방」, 신일철의 「화이트헤드의 사건개념」, 제2집에 실린 최동희의 「실존적인 경험」, 김영철의 「감동주의적 윤리설은 주관주의인가?」, 신일철의 「화이트헤드의 자연관」, 제3집에 실린 최동희, 김영철, 신일철 3인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움, 「현대사조의 위기와 전망 — 1960년의 한국사상은 어디로?」 등이 그 예이다.

Ⅲ. 고려대 철학과 제2세대 (1950년대 말~1990년대 초)

고려대학교 철학과에서 철학 교육을 받은 분들이 고려대학교 철학과 강의단에 서게 된 것이 “1950년대 말”로, 바로 이때가 “제1차 세대교체의 시작”(12), 즉 고대 철학과 제2세대의 등장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2세대에 속하는 교수들은 물론 많지만, 서양철학과 관련해서는 우선 최동희, 김영철, 신일철의 3인을 꼽아야 한다. 이 분들은 각기 47, 49, 51학번으로 철학과와 출범을 같이 했으며, 1세대 철학자들에게 직접 받은 지적 자양분을 바로 후학들에게 전수해 고려대 철학과 학문적 전통의 기틀을 다진 분들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를 전공한 최동희 교수는 주로 독일철학에 대한 강의를 맡았고, 실천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김영철 교수는 윤리학 관련 강의를 담당했다. 화이트헤드를 전공한 신일철 교수는 영미철학과 지식론 강의를 맡았으나, 그 특유의 박학으로 역사철학과 사회철학에서도 명 강의를 해 명성이 높았다. 2세대의 등장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것은 서양철학을 전공한 최동희, 신일철 교수가 한국 사상과 관련한 박사 논문을 썼다는 점일 것이다. 최동희 교수의 박사논문의 제목은 「신후담 안정복의 서학 비판에 관한 연구」이고, 신일철 교수의 논문 제목은 「신채호의 역사사상 연구. 양계초를 통한 서구사상 수용을 중심으로」이니, 동양의 정신으로 서양철학을 통찰하고, 서양의 방법론으로 동양철학을 탐구하는 고대 철학과와 전통은 이미 이때 움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통의 힘 아래서 고대 철학과는 줄곧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모두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철학자들을 배출해 올 수 있었다.¹⁶⁾

16) 한편 신일철 교수는 이 같은 일련의 전통을 고대 철학과에 의한 “철학의 민족 주체화”로 파악한다. 물론 이를 위해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윤사순 교수의 “퇴계 사상 연구”와 “한국철학의 체계화의 노력”이

이제 고대 철학과 제2세대 철학자들의 면면을 그 부임 년도를 따라가며 살펴보기로 하자. 2세대 중 최초로 철학과에 부임하여 1세대 철학자들과 함께 고대 철학과를 이끄셨던 분이 바로 최동희 교수(재직 기간: 61년~90년)이다. 내가 기억하는 최동희 교수는 늘 온화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책만 붙들면 특유의 성실과 독심으로 이른바 철학자의 인내를 몸소 보여 준 분이였다. 난해하기만 한 독일 철학 원서를 해부학자의 섬세함을 가지고 절개하고 봉합하며 끝내 완벽한 텍스트 이해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여, 그 분의 강의는 늘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대학원 시절 수강했던 ‘『존재와 시간』 강의’와 ‘딜타이의 삶의 범주(딜타이, 『전집』, 7권의 일부) 강독’은 전형적으로 최동희 교수의 역량이 발휘되어 수강생으로서 참으로 알찬 결실을 얻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고대 철학과가 배출한 모든 독일 철학 전공자들은 최동희 교수의 진지한 탐구 태도와 탁월한 설명력에 큰 도움을 입었다 할 수 있다. 최동희 교수는 저술¹⁷⁾ 및 번역¹⁸⁾ 활동을 통해 국내에 독일철학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으며, 동학에 대한 수다한 선구적 연구로¹⁹⁾ 한국의 “동학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²⁰⁾ 했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최동희 교수의 “동학사상과 실학사상 연구,” 그리고 신일철 교수의 “장지연, 신채호의 자강주의 사상과 동학사상 연구”가 또한 적잖은 공헌을 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 다양한 노력들의 결실로 비로소 “철학의 한국 주체화”(12)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한국 철학계에서 차지하는 고대 철학과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이 점은 두고두고 내세울, 고대 철학과의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 17) 「하이데거의 언어관」(눈피 허웅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1978), 「하이데거의 기초존재론에 나타난 사람과 말」(『자아와 실존』, 1987)은 하이데거의 난해한 사상을 쉬운 필치로 소개한 수작이다.
- 18)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 볼노의 『실존철학』, 란트그레베의 『현대철학의 근본조류』 등이 대표적인 번역 업적이다.
- 19) 『천도교』(1972), 『동학의 사상과 운동』(1980) 등의 저서와 「서화담의 사상」(『한국사상』, 제1집, 1959), 「동학사상의 연구」(『아세아연구』, 통권

신일철 교수(재직 기간: 63년~97년)는 원래 화이트헤드에 대한 연구로 철학 공부를 시작하여, 고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영미 철학 담당 교수로 재직했지만, 실제로는 영미와 유럽은 물론 서양과 동양, 이론과 실천철학 다방면을 섭렵한, 그야말로 총체적인 철인이었다. 선생의 연구는 인식론과 과학철학,²¹⁾ 사회철학,²²⁾ 프래그머티즘,²³⁾ 역사철학,²⁴⁾ 철학사 일반,²⁵⁾ 한국사상,²⁶⁾ 심지어 주체철학 비판²⁷⁾에까지 이르도록 폭이 넓었고, 강의 역시 ‘지식의 문제’, ‘역사

35호, 1969), 「고봉의 인생관」(『아세아연구』, 통권 49호, 1973) 「동학의 신관」(『신인간』, 1979), 「최제우의 인간관」(『철학적 인간학』,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연구논총, 1985) 등을 들 수 있다.

- 20) 윤사순, 이광래, 같은 책, 210쪽.
- 21) 이 분야에서는 많은 역서를 남겼다: 『릿셀』(이화여대출판부); 『현대의 과학철학』(공역, 서광사, 1985); 『현대의 과학철학 2』(공역, 서광사, 1994).
- 22) 이 분야에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Nozick의 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인문논집』,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제40집, 1995); 「하버마스의 역사적 유물론재구성론」(1991); 「역사의 증언론과 소련·동구 사회주의 해체」(『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3).
- 23) 이 분야에서는 다음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프래그머티즘과 미국적 생활양식」(『현대철학과 사회』, 서광사, 1992); 『미국문화와 실용주의』(공저, 민음사).
- 24) 이 분야에서는 다음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신체호의 역사사상 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75); 「역사적 이해의 기준 문제」(『고려대학교 논문집』, 제15집, 1969); 「역사의 과학성 문제」(『철학연구』, 철학연구회 편, 제14집, 1979).
- 25) 이 분야에서는 다음의 저서가 있다: 『현대사상의 모험』(세계사, 1966); 『현대철학사상의 흐름』(집문당, 1987); 『현대철학과 사회』(공저, 서광사, 1992).
- 26) 이 분야에서는 다음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한국을 탐구한다』(1965); 『새시대의 한국인』(1987); 『한국인의 사상』(1978); 『동학사상의 이해』(나남, 1995); 「동학혁명의 사상사적 성격」(『동학혁명 100주년 기념논집』, 천도교, 1994); 「도산 안창호의 사상」(『사상』, 사회과학원, 1994); 『현대사회철학과 한국사상』(1997).
- 27) 이 분야에서는 다음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북한 사회주의 좌절론」(『공산권 연구 총서』, 제34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2); 「주체철학의 몇 가지 문제들」(극동연구소, 1995); 『북한주체철학 연구』

철학', '사회철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필자 역시 대학 시절 신일철 교수의 많은 강의를 통해 철학 훈련을 받았는데, 유난히 잊을 수 없는 강의는 선생의 해박한 철학적 지식들이 총 동원되었던 '서양철학사'였다. 이 강의는 마치 탈레스에서 현대에 이르는 서양 정신사의 파노라마와 같아서 초학자들도 학기 말이면 서양철학사의 맥과 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훌륭한 강의였다. 그런 분에게 철학을 배울 수 있었고 대학원에서 석사논문의 지도까지 받을 수 있었으니, 그것은 필자가 고대 철학과에서 누릴 수 있었던 각별한 복이었다. 다방면에 걸친 연구와 저술 활동, 강의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 근본에 있어 선생은 —그 분의 한 제자가 정확히 표현했듯이— “우리 사회의 현실과 우리 민족의 앞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철학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신 참된 사회철학자”였고, 그 분의 철학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보수주의”²⁸⁾였다. 1997년 강단 철학계를 떠나시며 많은 시간을 얻게 된 선생은 이제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다. 실제로 은퇴 후 선생은 놀라운 열정과 에너지로 평소 원하던 연구에 몰두했고, 그 결과 『평양에 봄은 오는가』(1999), 『시장의 철학』(2001), 『북한 정치의 시네마 폴리티카』(2002),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 쇠퇴』(2004), 『뉴 라이트와 시장의 철학』(2004) 등의 저서를 출판했다. 가족의 전언에 의하면 읽고 싶은 것을 읽고,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있었던 바로 이 시기가 선생의 인생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한다. 마지막 책을 출판하신 후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이듬해부터는 심각한 투병이 시작되었다. 제자들이 선생을 뵈 수 있었던 것도 2005년 9월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 몇 차례 문병을 시도했지만 제자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다며 한사코 거절하셨다. 결국 강제 침입을 하듯 선생 댁의 문을 밀치고 들어갔던, 서

(1993, 나남).

28) 이유헌, 「한국 철학계의 큰 별이 지다. 고 신일철 명예교수」, 『고대교우 회보』, 2006. 2. 15.

강대 철학과의 정인재 교수 외에 투병 중의 선생의 모습을 본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에게 ‘철학자의 정갈함’이라는 가르침을 남기시고, 선생은 2006년 1월 홀로 북망으로 가셨다. 그야말로 “한국 철학계의 큰 별이 지는”²⁹⁾ 순간이었다. 유족들은 평소 선생의 뜻을 받들어 고려대학교 철학과에 2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³⁰⁾

김영철 교수(재직 기간: 70년~94년)는 25년에 이르는 고대 철학과 재직 기간을 통하여 줄곧 ‘윤리학’, ‘도덕철학의 제문제’, ‘가치론’ 등의 강의를 맡으셨다. 나의 기억에 의하면 그분은 특유의 따사로운 인품과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평생을 일관하신, 말의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젠트맨이었다. 늘 타인을 먼저 배려했고 타인에게 작은 불편도 끼치기를 원치 않았던, ‘윤리적인 삶을 실천한, 드문 윤리학자’였다. 필자의 대학 시절 학우들 사이에선 “윤리학자는 범인보다 더 윤리적”이라는 속설이 바로 저 분 때문에 생겼다는 농담이 오갈 정도였다. 1989년 제자들이 선생의 회갑을 축하하며 출판한 논문집³¹⁾의 서문은 선생을 일컬어 “은자처럼 휴머니스트적 열정으로 살아온 한 윤리학자”라 표현했다. 그리고 제자들은 “혹시 이 책을 내는 것만으로도 자기 현시를 그 누구보다 꺼리시는 선생님께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우려에 내가 기억하는 선생의 겸허하신 모습이 있다. 선생은 『윤리학』(1982), 『도덕철학의 제문제』(1982), 『한국윤리사상사』(공저, 1987) 등

29) 이유선, 같은 글.

30) 선생이 돌아가시고 한 해가 지나 그 제자들은 선생의 철학 정신을 기리는 23편의 논문과 1편의 발문으로 구성된 논문집, 『논쟁과 철학』을 출간하였고(김성진, 정인재 엮음,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10주기를 맞아서는 선생의 학문 세계와 저서, 강의안 분석, 선생의 삶과 인간적 풍모까지, 선생의 철학 그리고 삶과 관련된 내용을 총망라하여 『신일철, 그의 철학과 삶』(이재영 외 지음,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을 출간하여 그 영전에 바쳤다.

31) 김영철 외, 『현대사회와 윤리』, 서광사, 1989.

의 저서를 남기셨으며, 「형이상학은 배제되었는가?」,³²⁾ 「윤리학에서 존재와 당위」,³³⁾ 「도덕적 의무의 정당화」,³⁴⁾ 「가치갈등의 문제」³⁵⁾ 등 윤리학 관련 논문을 다수 남기셨다.

「의미의 검증가능성이론」으로 1961년 석사학위를 취득했던 조병일 교수(재직 기간: 70년~77년)는 “논리실증주의 등 경험론 연구에 힘쓰며”(394) ‘논리학’을 강의했고, J. 로크의 『인간오성론』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한편, 1973년에는 로크에 관한 논문을³⁶⁾ 발표했던, 경험론 분야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학자였다고 한다. 짧은 재직 기간이었지만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성실한 학자로서의 이미지를 남긴, 오로지 공부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분이였다고 전해진다. 김충렬 교수의 회고에 의하면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 외에 아는 서울 길이 없어 어디에 데려다 놓아도 길을 잃어버릴 사람이였다고 한다. 유감스럽게 1977년에 타계했다. 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작고의 사연을 아는 이들은 오래도록 슬픔의 눈물을 거둘 수 없었다고 한다. 고대 철학과로서는 참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1971년에 표재명 교수(재직 기간: 71년~99년)가 고대로 부임해왔다. 표재명 교수는 서양철학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서양중세철학’, ‘서양근대철학’, ‘철학적 인간학’, ‘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담당했다. 그러나 표재명 교수의 주 전공은 키에르케고어였고, 또 이 분야에 관한 한 국내 “제1인자”(13)라고 할 수 있다. 선생의 키에르케고어 연구는 평생을 두고 지속되었고 그 결과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연구 논문³⁷⁾과 『키에르케고어

32) 『건대학술지』, 4호, 1962.

33) 『고대문리논집』, 7호, 1963.

34) 『고대인문논집』, 21호, 1976.

35) 『고대인문논집』, 29호, 1979.

36) 조병일, 「J. 로크의 인간오성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논집』, 제18집.

37) 「키에르케고어의 역설의 개념」(『철학연구』, 철학연구회 편, 1975, 제10집); 「키에르케고어의 실존의 삼 단계설」(『사색』, 송전대철학회, 1977,

연구』(1995), 『키에르케고어의 단독자 개념』(1992)이라는 탁월한 두 권의 연구서를 저술했다. 또한 키에르케고어의 『철학적 단편』과 『들의 백합, 공중의 새』도 선생이 번역한 글이다. 평생을 키에르케고어 연구에 몰두했고 또 한국의 키에르케고어 연구를 선봉에서 이끄셨던 선생은 이렇게 한 사람의 철학자에 경도된 자신의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젊은 나이로 6·25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1950년대 중반에 대학 생활을 보낸 나의 내적 삶을 이끌어준 키에르케고어에 대한 나의 연연한 사랑의 표시”³⁸⁾라고 고백한 바 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유난히 따스한 품성을 지녔던 선생은 언제나 학생들을 열린 자세로 대했고, 그래서 유난히 따랐던 학생들이 많았다. 물론 필자도 그중의 한 사람이다.

평생을 논리학 강의와 연구에 종사했던 여훈근 교수(재직 기간: 78년~2000년)는 “기호논리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자 위치를 점한”(12) 분이다. 1980년에 초판이 나온 『현대논리학』은 교과서로서의 충실성이 인정되어 많은 대학에서 논리학 교재로 채택했고, 그 사정은 물론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필자도 대학 1학년 시절 여훈근 교수에게 논리학을 수강했는데, 그때 받은 논리적 사고의 훈련이 대학 생활 4년 내내 큰 무기가 되었기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훈근 교수의 ‘논리학 강의’는 그 명쾌함으로 인해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철학과 학생뿐 아니라, 타과의 학생들까지 몰려들어 강의실은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학원 시절 여훈근 교수의 지도학생들을 도와 수천 장에 달하던, 객관식 답안지를 채점하던 기억이 난다. 여훈근 교수는 일일이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연구 논

제5집); 「키에르케고어의 “주체성=진리” 사상」(『철학연구』, 고려대철학회 편, 1978, 제5집); 「키에르케고어와 정치·사회 문제」(『철학연구』, 고려대 철학회 편, 1982, 제7집); 「루카치의 키에르케고어 비판」(『철학연구』, 고려대철학회 편, 제13집; 1988); 「키에르케고어의 큰 지진의 체험」(『철학연구』, 고려대철학회 편, 제17집, 1993) 등.

38) 표제명, 『키에르케고어 연구』, 지성의 샘, 1995, 5쪽.

문을 남겼고,³⁹⁾ 『현대 논리학의 연구』(1986), 『기호논리학』(1977), 『논리와 진리』(공저, 1996), 『논리철학』(2000) 등의 탁월한 연구서를 쓰기도 했다. 한국논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대학에서 과학철학을 전공한 이초식 교수(재직 기간: 81년~2001년)가 1981년에 고대에 부임했다. 선생은 ‘과학철학’, ‘기술철학’, ‘언어철학’, ‘심리철학’, ‘전산학의 논리와 철학’ 등을 강의했는데, 전통적인 근대 인식론에만 익숙하던 우리에게 처음 대하는 ‘과학철학’ 강의는 신선함 그 자체였다. 구획 기준, 설명의 논리 등 모든 것이 재미있었지만, 특히 포퍼의 반증주의가 꽤나 심각한 지적 도전으로 다가왔었다. 과학철학을 수강하던 철학과 학생들은 밤을 세워가며 “단 한 마리의 하얀 까마귀가 발견되어도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명제의 진리치는 거짓이다.”라는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 유전학적, 계통학적, 언어학적, 심지어 색채학적 궤변을 늘어놓으며 논쟁을 벌이기 일쑤였다. 선생은 우리에게 아직 어설픈 단계이기는 했지만 스스로 철학을 하게 해 주셨던 것이다. 선생은 우리나라 과학철학 연구, 특히 귀납논리 연구와 인공지능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쌓았고,⁴⁰⁾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철학 교육에 관심이 많

39) 대표적인 것만 몇 개 꼽자면 다음과 같다: 「확률에 관한 연구」(『인문논집』, 고려대 문과대학, 제8집, 1967); 「수학 및 기호논리학에 의거한 삼단논법의 분석」(『인문논집』, 고려대 문과대학, 제19집, 1974); 「직접추리의 현대적 분석」(『철학연구』, 고려대철학회 편, 제5집, 1978); 「양상논리의 필연성 문제」(『철학』, 한국철학회, 제16집, 1981); 「다치논리의 해석 문제」(『철학』, 한국철학회, 제20집, 1983); 「규범논리에 관한 연구」(『인문논집』, 고려대 문과대학, 제34집, 1989); 「시제논리에 관한 연구」(『인문논집』, 고려대 문과대학, 제42집, 1997) 등.

40) 대표적인 업적은 다음과 같다: 「귀납추리의 정당화에 관한 고찰」(『철학연구』, 철학연구회 편, 제1집, 1966); 「귀납의 부정론과 긍정론」(『철학』, 한국철학회 편, 제9집, 1975); 「가치, 규범, 의사결정의 논리연구」(『철학』, 한국철학회 편, 제14집, 1980); 「과학성이란 무엇인가? — 분석철학의 입장」(『철학연구』, 철학연구회 편, 제17집, 1982); 「과학적 인식에 있어서 발견과 정당화의 맥락에 관한 고찰」(『철학』, 한국철학회 편, 제26집, 1986); 「인공지능과 카르납의 인공언어」(『현대철학과 사회』, 1992); 「인

아 이 분야에도 중요한 연구 업적을 냈다.⁴¹⁾ 1993년에 펴낸 저서, 『인공지능의 철학』이 열암학술상을 수상하여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선생은 한국철학교육연구회 회장, 한국철학교육아카데미 원장, 한국논리연구회 회장, 한국인지과학회 회장, 철학연구회 회장,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신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지만 필자에게는 4년 내내 필자의 대학 생활에 관심을 가져 주셨던 사상한 학부 지도교수였다. 공부 계획과 졸업논문 작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우 관계와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해 주시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도교수의 지도를 내가 전부 수용했던 것은 아니다. 전형적인 실증주의자였던 선생은 틈만 나면 카르납을 인용하며 “확률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아라!”라고 가르쳤지만, 정반대의 관념론자였던 나는 “게임을 하듯 인생을 살 수는 없다”고 버텼다. 어리고, 설익고, 경솔한 제자를 선생은 늘 관대하게 수용해 주셨다. 동안(童顔)에 퍼지는 그 특유의 환한 웃음으로.

그리스 아테네국립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권창은 선생(재직 기간: 86년~2002년)이 고대에 부임한 것은 1986년이였다. 이로써, 1976년 손명현 선생이 고대를 떠난 후 10년간 공백이 유지되던 회랍철학 연구와 강의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권창은 선생을 회고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온화한 인품이다. 늘 타인에게 따뜻하게 대했고, 푸근함을 느끼게 하는 관대한 분이였다. ‘인간에 대한 사랑’ — 그 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늘 같이 떠오르는 말이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공지능의 철학적 성찰』(『과학사상』, 1994) 등등.

- 41) 대표적인 업적은 다음과 같다: 「고교 수학 교육과정에 나타난 논리 교육의 문제」(『철학』, 한국철학회 편, 제18집, 1982); 「고등학교에서의 철학교육」(『철학』, 한국철학회 편, 제20집, 1983); 「고등학교 철학과 교육과정과 ‘철학함’의 모형」(『철학교육연구』, 한국철학교육연구회, 1990); 「비판적 사고에 있어서 형식논리의 역할」(『철학교육연구』, 한국철학교육연구회, 1990); 『철학 — 민주이념의 확립을 위하여』(1968); 『논리교육』(1996) 등등.

“선생의 삶 속에서 이론과 실천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선생의 철학과 삶이 ‘실천철학과 이론철학을 아우르는 고대 철학과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뜻이다. 원래 권창은 선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귀납논리를 탐구하던 이론철학자였다. 그러나 10년간의 고달픈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조국은 고답적인 이론철학에 천착할 수 있는 쾌적한 온실이 아니었다. 선생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군사 독재가 기승을 부리는 암울한 현실”⁴²⁾이었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호도하여 부당한 정권의 악법을 정당화하는, 사악한 “시중 인식”⁴³⁾이었다. 이 어두운 현실에 실천철학자 권창은 몸으로 그리고 글로 항거했다. 80년대 격동기의 역사적 실천의 현장에 선생이 서 있었고, 사악한 시중 인식에 대해서는 철학자의 준엄한 경고문을 보냈다.⁴⁴⁾ 이렇게 선생의 철학적 삶은 인간을 사랑했고,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천했기에 후에 제자들이 선생의 묘비에 “인간에 대한 그 따스한 마음과 진리를 향한 그 엄격한 지성으로, 정의를 위해 굽힘없이 걸어가셨다.”⁴⁵⁾고 적었을 것이다. 선생은 16년에 이르는 재직 기간 동안 많은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주장이 없으면 결코 펜을 잡지 않았던” 당신의 “엄격한 학문적 태도”⁴⁶⁾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생이 남긴 글들은 오히려 더 주옥같기만 하다.⁴⁷⁾ 권창은 선생은 고려대학교 철학과 제

42) 권창은, 『희랍철학의 이론과 실천』, i쪽.

43) 같은 책, 167쪽

44) 바로 이것이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이다(권창은, 「소크라테스와 ‘악법」, 『철학연구』, 철학연구회 편, 제33집, 1993;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정의와 준법」, 『철학연구』, 철학연구회 편, 제35집, 1994).

45) 권창은, 『희랍철학의 이론과 실천』, ii쪽.

46) 같은 책, i쪽.

47) 권창은 선생이 남긴 대표적인 글들은 다음과 같다: 「귀납추리의 정당화 문제」(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Aristotle's 'epagoge」(『철학연구』, 고려대학교철학회 편, 제10집, 1985); 「Aristotle의 부수감각론」(『서양고전학연구』, 한국서양고전학회 편, 제3집, 1989); 「Metaphysica 'IX'책 10장」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 'thigein'의 해석문제」(『인문논집』, 고려대학

2세대의 마지막 분이었다.⁴⁸⁾

고대 철학과 특유의 학풍과 정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1세대와 2세대 철학자들이 기여한 바는 참으로 컸다. 우선 제1세대는 과의 설립, 고려대학교철학회의 구성, 그리고 학술지 『철학연구』의 창간을 통해 철학과와 외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이 분들은 외국의 첨단 철학 이론을 수입, 소개하고, 나아가 이를 나름의 관점에서 소화, 교육함은 물론 우리 전통 사상에 대한 심오한 연구까지 전개하여 고대 철학과와 내적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이미 이때부터 ‘이론철학과 실천철학, 그리고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철학인의 이상’은 고대 철학과와의 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1세대가 마련한 탄탄한 기초 위에서 2세대 철학자들은 1세대의 전통과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갔다. 교수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간의 학술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이론철학이나 실천철학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 철학적 사유의 균형이 유지되었다. 바로 이 정신 —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 어느 대학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고대 철학과만의 특성이고, 고대 철학과를 국내 최정상의 철학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원동력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교 문과대학, 제36집, 1991);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추론으로서의 귀납」(『논리와 진리』, 여훈근 외 지음, 철학과 현실사, 1996);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觀 — 응징정의관을 중심으로」(『서양고전학연구』, 한국서양고전학회 편, 제10집, 1996); “Aristotle’s Conception of Retributive Justice,” in: *The Aristotelian Ethics and its Influence* (Proceedings of *Lykeion*) ed. by D. W. Koutras, Athens, 1996; “Aristotle’s epagoge as Logos”, in: *The Philosophy of Logos*, Vol. I,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enter for Greek Philosophy and Culture & K. B.) ed. by K. I. Boudouris, Athens, 1996.

48) 선생은 서양고전철학회 회장, 한·희친선협회 총무이사,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IV. 고려대 철학과 제3세대(1990년대 초~현재)와 철학과의 미래

모든 역사적 시대 구분이 그러하듯 고대 철학과의 역사에서도 2세대의 끝과 3세대의 시작을 가르는 분명한 구획의 시점은 없다. 두 번째의 세대교체는 2세대 최초의 교수였던 최동희 선생의 정년(1990)을 기점으로 하여 2002년 권창은 교수의 별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12년간 진행되었다. 교체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철학과의 정신도 훼손 없이 전승될 수 있었다. 2세대 교수들의 퇴임과 3세대 교수들의 등장 과정, 그리고 고대 철학과 정신의 전승의 과정을 더듬어 보자. 필자는 이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2, 3세대가 함께 과를 꾸려가며 전통을 전수하는 과정(1990년 초~2002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오로지 3세대 철학자만으로 고대 철학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2002년~2007년)이고, 세 번째 단계는 이 준비가 무르익어 가시적 결실을 탄생시키는 과정(2008년~현재)이다.

1. 제3세대 1단계(1990년~2002년)

고대 철학과 제3세대 교수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운 좋은 세대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시련에 직면했던 세대이기도 했다. 2세대의 원로들이 12년간이나 3세대와 함께 과를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이들은 행복했지만, 반면 2세대 원로들이 아직도 젊은 나이의 3세대만을 남겨두고 한꺼번에 과를 떠났다는 점에서는 불행하기도 했다. 처음의 상황은 상당히 좋았다. 2세대의 퇴임이 매우 천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90년에 최동희, 94년에 김영철, 97년에 신일철 교수가 퇴임을 하기까지 7년이 걸렸고, 충분히 여유 있는 교체의 시간이 있었다. 실제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헤겔, 칸트, 실천철학을

전공한 임흥빈 교수가 최동희 교수의 후임으로(92년 부임),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인식론과 심리철학을 전공한 하중호 교수가 신일철 선생이 담당하던 영미철학 교수로(95년 부임), 그리고 독일 본 대학에서 현상학과 윤리학을 전공한 이길우 교수가 김영철 교수의 후임으로 고대에 왔다(95년 부임). 이렇게 새로운 철학자들이 대거 보강되면서 이미 퇴임한 또는 퇴임을 앞둔 2세대 철학자들의 공백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과는 원로(여훈근, 표재명, 이초식)와 중진(권창은, 이길우), 그리고 신진 교수(임흥빈, 하중호)의 비율이 이상적으로 유지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고대 철학과와 역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중요한 “경사”(14)가 둘 있었다. 첫째 경사는 1946년에 설립된 고대 철학과가 1996년 드디어 창과 50주년을 맞이한 일이다. “知天命”(7)을 자축하고, 철학과가 걸어온 50년 역사의 뒀안길을 돌아보기 위해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고, 여기서 신일철 교수와 윤사순 교수가 각각 「고대 철학과 50년의 회고 — 서양철학」, 「고대 철학과 50년의 회고 — 동양철학」을 발표했다. 역사의 회고는 “愛科精神”을 고취시켰고, 이는 곧 “철학과와 발전에 위한 학과 발전 기금 모 집”(14)으로 이어졌다. 그야말로 성대한 생일잔치였다. 그러나 ‘하늘의 뜻을 알’게 된 고대 철학과는 어제의 성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철학과와 “학문적 연구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일을 동시에 준비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경사로, 철학과와 “오랜 숙원”이었던 “고려대학교 부설 철학연구소의 설립”(14)이다. 마침내 1996년 9월 1일 신일철 교수를 초대 소장으로 철학연구소가 출범했다. 신일철 교수는 철학연구소가 발간한 최초의 『철학연구』인, 제19집의 권두언에서 새로 출범한 연구소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다음과 같이 펼치고 있다.

“드디어 本校 哲學科 創立 50주년을 기해 고려대학교 부설 철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우리 모든 고대 철학과가

족의 연내의 숙원이 달성되었고, ‘민족대학’ 고려대학교의 연구 기관으로서 철학 연구의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한민족의 응비가 마련되는 도약대에 새 시대의 철학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을 심어 놓았다. 앞으로 이 씨앗은 온갖 풍상을 이겨내고 한국철학의 대목으로 자라 세계 철학계에서 주목받는 학풍의 중심으로 군림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 우리 철학연구소의 연구 풍토는 끊임 없이 학문적 연구에서 생산성을 추구하면서 고전 연구와 현대 연구를 조화시키고,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의 만남을 추구하면서, 교육과 연구가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철학의 찬란한 향연’을 베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 연구소가 추구하는 철학은 튼튼한 경험적 실증적 바탕을 가진 것이면서 대담한 상상력으로 끊임없이 知的 冒險을 마다하지 않는 생동하는 探究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철학이 공소한 스킨라적 관념의 놀이가 되지 않고 가까이 철학 교육의 발전에 공헌하면서 우리 사회의 倫理 形成과 正義 社會 實現의 哲學的 基礎를 마련하는 데도 힘써 ‘민족대학’의 철학연구소로서의 특성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때 海外 思潮와 主義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상의 식민지적 풍토를 개탄하면서 丹齋 申采浩는 ‘主義의 조선은 있으나 조선의 主義는 없다.’라고 따끔한 충고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연구소는 어디까지나 세계의 철학 사상을 탐구하더라도 우리 문화 우리 사상의 풍요화에 공헌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⁴⁹⁾

원로 교수의 이 웅장한 다짐에 제1세대로부터 이어온 그리고 계속 이어가야만 할 고대 철학과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⁵⁰⁾ 실제로 철

49) 신일철, 「권두언 — 혁신호에 부쳐」, 『철학연구』,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편, 제19집, 1996.

50) 실제로 철학연구소의 설립 취지는 철학과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철학연구소의 홈페이지(<http://www.ipsku.org>)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양철학과 ... 동양철학 및 한국사상과의 종합을 추구하는 작

학연구소는 학술지(『철학연구』) 발간, 월례 발표회, 해외 석학 초빙,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 연구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고대 철학과 의 정신 그리고 연구소 설립 정신을 계승, 구현하고 있다.⁵¹⁾

최동희, 김영철, 신일철 등 원로 교수 세 분이 정년으로 과를 떠났지만 90년대 후반 고려대학교 철학과 서양철학은 그 위상과 연륜으로 보아 여전히 막강한 교수진을 구축하고 있었다. 표재명, 여훈근, 이초식, 권창은 등 2세대에 속하는 네 명의 교수가 남아 있었고, 또 연배로 보아서도 역시 2세대에 속할 이길우 교수(60학번)가 새로 부임했기 때문이다. 이길우 교수는 독일 본 대학에서 후설을 연구하여 「주관성과 공동주관성」(*Subjektivität und Intersubjektivität*)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오랜 시간을 현상학 연구에 몰두한 분이다. 타고난 학자라 평생을 아무런 외도 없이 공부에 공부만을 거듭했고, 그 결과 현상학에 관한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많이 남겼다. 이 결과물은 대략 두 부류로 나뉘는데, 그것은 후설 현상학이 갖는 고유한 학문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많은 현상학자들이 괄호침(Einklammern)과 환원(Reduktion)을 거듭하여 선형적 주관성의 영역에 도달한 후 거기서 발견한 유아론(solipsism)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듯, 이길우 교수 역시 유아론의 극복을 위해 ‘공동주관성’이라는 하나의 주제와 ‘공동주관적 삶의 규범으로서의 윤리의 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그러나 물론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와 평생

업, ... 철학의 각 분야에서 생산된 개별적인 결과들을 종합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전문 연구,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고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철학 교육과 논리 교육에 대한 ... 체계적인 연구 ... 순수 이론적인 철학 연구뿐만 아니라 응용 철학의 분야에 대한 연구” 등의 필요성이 “본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배경과 동기”이다.

- 51) 신일철 초대 소장에 이어 2대 여훈근 소장(1997.03.01~1999.02.28), 3대 윤사순 소장(1999.03.01~1999.08.31), 4대 이초식 소장(1999.09.01~2001.02.28), 5대 권창은 소장(2001.03.01~2002.04.09), 6대 임홍빈 소장(2006.04.10~2008.02.28), 7대 이승환 소장(2008.03.01~2014.11.30), 8대 오상무 소장(2014.12.01~현재)이 연구소를 이끌어 왔다.

을 두고 씨름했다. 그 결과 이길우 교수는 자아와 공동주관성에 관한 일련의 논문,⁵²⁾ 그리고 현상학적 윤리학의 가능성에 관한 일련의 논문⁵³⁾을 남겼다. 이 논문들은 모두 이길우 교수 특유의 “학문적 성실과 철학적 진지함”⁵⁴⁾의 산물이었기에 그 문제의식이 심각하고, 논의 전개가 치밀하며, 도출된 결론 역시 생산적이었다. 여러모로 보아 이길우 교수는 퇴임하신 김영철 교수의 후임 교수로 부족한 데가 없는 분이였다. 더욱이 이길우 교수는 그 연배와 경륜으로 보아 2세대 교수들 대다수의 정년 퇴임 후, 2세대의 마지막 철학자 권창은 선생과 더불어 3세대를 이끌어 갈 분이였다.

2. 제3세대 2단계(2002년~2007년)

이때까지는 비교적 원만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제3세대의 운

-
- 52) 이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선험적 자아의 존재와 동일성」(『철학연구』, 대한철학회 편, 42집, 1986); 「자아의 태도와 습득성」(『자아와 실존』, 최동희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민음사, 1987); 「공동주관성의 문제」(『후설』, 이영호 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0); 「정서적 동기관계와 상호주관적 습득성」(『현상학과 실천철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7집, 한국현상학회 편, 1993); 「구성이론과 존재론」(『후설과 현대철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4집, 한국현상학회 편, 1990).
- 53) 이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현상학적 윤리학」(『현상학의 전개』,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3집, 한국현상학회 편, 1988); 「현상학의 감정윤리학. 감정 작용의 분석을 중심으로」(『현상학의 근원과 유역』,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8집, 한국현상학회 편, 1996);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 칸트의 윤리학」(『문화와 생활세계』,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13집, 한국현상학회 편, 1999); 「도덕원리의 형성에서 기능하는 감정의 법칙」(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인문논집』, 제41집, 1996); 「윤리적 관점에서 본 인간 복제」(『의료와 법률』, 제4호); 「A. 슈츠의 현상학적 사회철학」(『현대사회사상연구』, 이길우 외 저, 강원대출판부, 학술총서 1, 1986); 「현상학적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철학」(『현대사회사상연구』, 이길우 외 저, 강원대출판부, 학술총서 1, 1986).
- 54) 이길우, 『자아, 윤리, 그리고 철학. 한 현상학적 접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8쪽.

좋은 출발이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2세대 교수들의 퇴임은 한 해가 멀다하고 이루어져 세대교체가 그야말로 숨 막히게 진행되어야 했다. 99년에 표재명 교수가, 2000년에 여훈근 교수가, 2001년에 이초식 교수가 퇴임해서 2세대 서양철학 교수는 권창은 교수 한 분만이 남게 되었다. 2000년에 필자가 표재명 교수의 후임으로 철학과에 왔고, 다음 해에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논리학과 과학철학을 전공한 정인교 교수가 여훈근 교수의 후임으로 부임했다. 철학과는 급격한 세대교체의 물살을 타고 있었고, 아직 젊은 교수진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주어지고 있었다. 다행히 권창은 교수와 이길우 교수가 서양철학 교수진의 구심점이 되어 과를 운영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재앙은 몰려다닌다고 했던가? 2000년에 이길우 교수가 지병으로 타계하였고 두 해 뒤인 2002년에 권창은 교수마저 세상을 떠났다. 철학과는 큰 슬픔에 빠졌다.⁵⁵⁾ 동양철학의 원로였던 김하우 교수도 2001년에 정년퇴임을 했고 마지막 원로였던 윤사순 교수마저 2002년에 정년으로 과를 떠났다. 이로써 수년간 숨 가쁘게 진행되던 철학과의 세대교체는 일단락되었다. 이제 철학과에 2세대 교수는 한 분도 남지 않았고 철학과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에 이르는 젊은 교수들만으로 구성되었다. 위기라면 위기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위기는 긴장을 불러오고 긴장은 내적 결속을 낳는다. 원로들의 그늘을 잃은 철학과는 과 교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서양철학의 임흥빈(74학번), 동양철학의 이승환(74학번) 교수를 구심점으로 하여 원로가 없다는 단점을 젊음으로 극복하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손명현, 권창은으로 이어지던 고려대학교

55) 철학과는 이내 슬픔을 추스르고 가신 분들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고인들이 남긴 글들을 모아 두 권의 논문집을 출판했다. 이 책들은 자기 해당 분야의 탁월한 연구로 인정받고 있다(권창은, 『희랍철학의 이론과 실천』,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이길우, 『자아, 윤리, 그리고 철학. 한 현상학적 접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의 희랍철학 연구의 맥을 잇는 일이었다. 마침 그리스 아테네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한 손병석 박사라는 훌륭한 인재가 있어 2003년에 철학과의 가족이 되었다. 이제 고려대학교 철학과 서양철학은 임홍빈(독일고전철학), 하종호(인식론, 현대영미철학), 정인교(논리학), 김창래(독일현대철학), 손병석(희랍철학)의 5인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시작한다.

이때부터 철학과의 학술 활동은 철학연구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교육을 제외한 많은 학술 활동이 철학연구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필요했던 것은 세계 철학계의 첨단 동향을 소개하여, 고대 철학과의 학생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다. 이에 철학과와 철학연구소는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석학과의 만남을 주선해 왔다. 미국 버지니아대학의 R. 로티, 버클리대학의 J. 쉐얼, 독일 브레멘대학의 H. J. 잔트퀼러, 튜빙겐대학의 O. 회페, 트리어대학의 A. W. 뮐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I. 카사비네 교수 등의 강연을 주선했고, 또한 독일 브레멘대학의 B. 프리쉬만 교수와 미국 워싱턴대학의 박진영 교수를 한 학기 동안 초빙 교수로 모셔 학생들에게 세계 철학계의 추세와 최신 동향을 익히도록 했다. 또한 독일 브레멘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고려대학교와 브레멘대학에서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해 왔다. 2002년에 시작한 이 학술 대회는 2005년까지 서울과 브레멘에서 각기 두 차례씩 총 4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특히 처음 2002, 3년의, 트랜스컬처에 관한 두 학회 발표 논문을 모아 한 권의 단행본⁵⁶⁾이 출판되었고, 2004, 5년의 학회는 'Being Human'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고 여기서 발표된 논문들도 한데 엮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⁵⁷⁾

1996년부터 철학연구소가 발간을 담당한 『철학연구』의 활성화도

56) H.-J. Sandkühler, H.-B. Lim (Hrsg.), *Transculturality — Epistemology, Ethics, and Politics*, Frankfurt a. M. 2004.

57) Hong-Bin Lim, Georg Mohr (Hrsg.), *Menschsein*, Frankfurt a. M. 2100 (구체적인 학술대회의 내용은 별첨 자료 3을 참조).

제3세대가 이룩한, 빼놓을 수 없는 업적 중의 하나이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 19~25집이 발간되었고, 2003년 이후로는 매년 3월과 9월에 두 권의 『철학연구』를 발간하여 2016년 10월 현재 54집까지 발간되는 성과를 보였다. 이 성과가 인정되어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편 『철학연구』는 2006년, 1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물론 이를 위해 철학연구소 편집이사 오상무 교수가 오래도록 많은 수고를 했다.

또한 2002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임흥빈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공적합리성연구단이 발족됐다. 이 연구단은 2인의 서양철학 교수(임흥빈, 손병석)와 3인의 동양철학 교수(이승환, 조성택, 오상무)가 참여하고, 5인의 서양철학 전임연구원과 5인의 동양철학 전임연구원이 참여하여, 동양과 서양철학 전 영역에 나타난 공적 합리성에 관한 3년간의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그 성과가 세 권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⁵⁸⁾ 공적합리성연구단의 성공적인 연구에 이어 다시 2005년 손병석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고, 2인의 서양철학, 3인의 동양철학 공동연구원, 그리고 3인의 서양철학 전임연구원과 4인의 동양철학 전임연구원으로 구성된 심신가치론연구단을 출범시켜 동·서철학에 나타난 심신 문제를 가치론적으로 다루는 공동 연구를 3년에 걸쳐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은 세 권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⁵⁹⁾ 또한 두 연구단의 6년간의 연구활동은 국내에서의 여러 학술 발표회를 통해 그 연구결과가 공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브레멘 대학 철학과, 중국 대만 철학과의 공동 연구발표회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대학의 국제철학콘퍼런스 참여활동을 통해 그 연구의 양적

58) 임흥빈 편저, 『동서철학의 공적합리성. 개념 체계의 기원과 형성』, 철학과 현실사, 2005; 임흥빈 편저 『동서철학에 나타난 공적합리성 논쟁』, 철학과 현실사, 2005; 임흥빈 편저; 『새로운 공적합리성의 모색』, 철학과 현실사, 2005.

59) 손병석 편저, 『동서철학 심신수양론』, 한국학술정보, 2013; 손병석 편저 『동서철학 심신관계론의 가치론적 조명』, 한국학술정보, 2013; 손병석 편저; 『동서철학 심신가치론과 현대사회』, 한국학술정보, 2013.

확산과 질적인 깊이를 달성코자 하였다. 그리고 2005년과 2007년에 독일의 유명학자인 R. 뵘머, H. J. 산트퀼러 그리고 A. 아른트의 특별강연도 철학연구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프로젝트가 과학철학, 논리학, 회의주의, 사회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되고 있다.

3. 제3세대 3단계(2008년~현재)와 철학과의 미래

고려대 철학과의 빛나는 위상은 철학연구소가 2008년부터 시작된 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지원(2008-2017)에 선정되는 쾌거를 통해 더욱 빛나게 되었다. <감성의 연구단>이란 타이틀을 갖고 출범한 중점연구소 사업단은 앞선 공적합리성연구단과 심신가치론 연구단과 더불어 무려 15년간의 지속적인 연구지원 선정이라는 점에서 국내의 어느 대학도 성취해내지 못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로써 고려대 철학연구소는 2017년까지 총 9년간에 이루어지는 3단계 연구과정을 통해 양적,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지원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1단계와 2단계는 이승환 연구소장의 장기적인 헌신적 지도아래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5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⁶⁰⁾ 현재는 오상무 연구소장의 열정적인 지도와 연구원들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2017년에 전체적인 연구결과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성의 연구단은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M. 너쓰바움의 특강(2008년)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철학연구소의 활동을 확산시켰다.

또한 고려대 철학과는 2011년 9월 하버드 대학 철학과에서 윤리

60) 『극복대상으로서 욕망』, 한국학술정보, 2011; 『자기실현의 동력으로서의 욕망』, 한국학술정보, 2011; 『욕망의 문제틀로 읽는 현대사회』, 한국학술정보, 2014; 『감정의 인식론적 고찰』, 한국학술정보, 2014; 『감정의 도덕심리학적 고찰』, 한국학술정보, 2014.

학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성장원이라는 젊고 훌륭한 인재를 새로운 전임교수로 맞이하게 되었다. 94년 고려대 철학과에서 윤리학을 맡아 가르쳤던 김영철 교수님이 퇴직한 후 무려 17년만에 윤리학 전임교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로써 고려대 철학과는 총 6명의 교수(임흥빈, 하중호, 정인교, 김창래, 손병석, 성장원)가 서양철학 분야를 맡아 가르치게 되었다.

고려대 철학과는 또한 교육부 주최,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기초학문심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의해 기초학문 우수연구자 지원을 위한 학부생 철학과 4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코어사업에는 철학과 10인 교수가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술한 모든 연구단의 역동적이며 탁월한 연구 활동은 바로 고대 철학과가 70년의 세월을 두고 이어 온 정신, 즉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그리고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비교적 젊은 교수들로 구성된 고려대학교 철학과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1세대와 2세대의 선배들이 형성하고 유지해 온 ‘철학과의 정신과 전통’이 성공적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3세대의 교수들을 대표하여 선배들이 힘겹게 일궈온 역사를 늘 다시 회고하며, 보다 성공적인 철학과의 미래를 향해 정진해 나갈 것임을 감히 약속드린다.

高麗大學校 哲學科 — 그 이름만 들어도 감격스러운 우리 철학과가 설립 70주년을 맞았다. 강산도 바뀐다는 시간이 일곱 차례 흘러갔고, 세 세대가 등장했다. 그 사이 철학과는 204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은 모두 철학과에서 받은 훈련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에서 고대 철학과의 이름을 떨치고 있다. 또한 철학과는 2016년 현재까지 335명의 문학석사와 129명의 철학박사를 길러냈고,⁶¹⁾ 이 중 대다수가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교육과 연구에

61) 서양철학 분야 박사학위 명단은 별첨 자료 1을 참조.

전념하여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⁶²⁾ 고려대학교 철학과는 지난 70년의 역사를 통해 이른바 대학의 3대 기능이라는 교육, 연구, 봉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온 것이다. 이에 철학과와 온 가족들에게 찬란했던 지난 70년의 역사를 잊지 말고, 더욱 빛나는 향후 70년의 역사를 건립해가자는 축구의 말을 하고 싶지만, 필자는 아직 그럴 연배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20년 전, 창과 50주년 행사에서 고 신일철 선생께서 우리 모두에게 던졌던 다짐의 말로 고려대학교 철학과 서양철학 70년의 학술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 모교 고려대학교는 우리 출신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다. 그리고 우리 철학과는 스승과 제자 선후배 동창 간에 따뜻한 정으로 뭉친 영원한 ‘마음의 고향집’이다. 우리는 21세기의 미래를 향해 다음 50년의 고대철학의 새 출발점에 섰다. 우리 고대 철학과는 기필코 한국은 물론 東아시아 철학계에 우뚝 솟은 頂上을 향해 약진을 거듭할 것이다. 우리 철학과는 학문 연구에서 왕성한 경쟁력을 가질 뿐만이 아니다. 철학의 기본 목표인 풍부한 인간성의 형성을 표방하는 인격의 도장으로서 착실한 전진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14).

62) 고대 출신 전임교수 명단은 별첨 자료 2를 참조.

〈별첨 자료 1〉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및 논문 제목

(서양철학, 2016년 10월 현재: 총 58명)

성명	수여일	학위논문 제목
金永喆	75. 9	道徳的 義務에 관한 研究
洪善熹	78. 2	Hegel의 矛盾論 研究
丁大鉉	79. 9	知識概念의 日常言語的 分析—그 歷史發展過程을 中心으로—
表在明	86. 2	키에르케고어의 單獨者의 概念
李光來	"	미셸 푸코의 構造主義 研究
韓東遠	87. 2	헤겔 『精神現象學』의 構造에 관한 研究
安健勳	"	對稱·反對稱 關係에 의한 因果性 分析
朴仁聖	87. 8	Hegel의 정신현상학 연구
李相伯	"	『存在와 時間』의 目標와 方法
金昇澤	88. 8	Kant 認識論 안에서의 主觀
崔容哲	89. 8	道徳的 責任 歸屬의 問題
申重燮	90. 2	科學의 理論 選擇에 있어서 合理性 問題
梁雲徳	90. 8	Hegel 哲學에 나타난 個體와 共同體의 辨證法
李一洙	91. 2	Kant에 있어서의 自由의 問題
金尤榮	91. 8	노직의 正義論 研究—權利 資格論을 中心으로—
林圭廷	92. 2	키에르케고어의 자기의 변증법
全永三	92. 8	우도(尤道) 개념의 논리적 분석. 카르납의 귀납 논리를 기반으로—
金榮男	"	W.V. 콰인의 自然主義 認識論 研究
李在榮	94. 2	英國 經驗論의 抽象概念 問題
金聖昊	"	칸트의 目的 自體의 定式에 관한 研究
南 清	"	歷史認識의 客觀性 問題
洪京實	94. 8	베르그송의 直觀에 관한 研究
禹貞圭	"	主體의 決斷의 戰略的 合理性
梁聖滿	"	Wittgenstein의 言語 使用論 研究
朴性洙	95. 2	『美的 判斷力 批判』에 관한 研究
李仁淑	"	共同體主義에 대한 研究
魯熙川	"	아리스토텔레스의 言語觀
鄭永基	"	Hempel의 行爲說明理論에 대한 비단조논리적 비판

李裕善	95. 8	認識論 批判과 眞理 問題: 로티와 가다머를 중심으로
朴永煜	96. 8	칸트철학에서 선형적 연역의 문제
金明軾	"	環境倫理에 관한 研究: 功利主義와 生命中心主義를 중심으로
任德俊	97. 8	道德과 合理的 自己利益에 관한 研究
金鍾國	"	責任과 自律: 요나스의 批判에 대한 칸트의 應答을 中心으로
鄭昌昊	98. 2	헤겔 논리체계에서의 〈현상〉에 대한 연구: 본질과 현상의 변증법
洪銀暎	"	미셸 푸코의 고고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 전기 저작을 중심으로
宋恩載	"	키에르케고어의 역설에 관한 연구
黃高重	98. 8	푸론주의와 사변철학: 아그리파의 회의적 논변들에 대한 헤겔의 대응
延喜園	99. 8	에코 기호학에 관한 한 연구
片相範	"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실천적 인식의 문제
朴俊龍	00. 2	프레게의 論理主義 研究
崔竣浩	00. 8	칸트의 반성적 판단과 목적론적 세계
張文禎	00. 8	메를로—뵘피의 애매성의 철학: 그의 키아즘적 사유 연구
金成翰	02. 8	도덕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과 다윈주의 윤리설
崔乘日	04. 2	키에르케고어의 종교성에 관한 한 연구
蘇炳喆	06. 2	도구적 합리성의 규범적 조건에 관한 연구
林建兌	"	니체의 비극적 인식과 형이상학 비판
高炫範	07. 2	헤겔 『논리의 학』에서 우연성 개념
李秉哲	07. 8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와 기술에 대한 물음
蘇秉一	08. 2	헤겔의 욕망론
金範仁	08. 8	양상 술어논리와 일차 술어논리의 상호 번역가능성
朴一虎	09. 8	Probability all the way down the roots : Studies on Probability Kinematics
沈容滿	10. 2	쇼펜하우어의 도덕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金東賢	"	진리 조건적 의미론과 축소주의적 진리 개념
朴志勇	11. 2	칸트의 숭고 개념과 숭고의 미학
安容奎	"	플라톤의 신체관
李耕民	12. 2	딜타이의 역사 이해 -역사와 이성의 통합으로-
吳知恩	13. 2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 운동 개념에 관한 연구
尹參錫	15. 2	헤겔 실천철학에서의 근대적 인륜성의 재구성과 자연법

〈별첨 자료 2〉 고대 철학과 출신 전임교수 명단⁶³⁾

연번	학번	성명	학교	학과
1	47	최동희	고려대	철학
2	47	박준택	중앙대	철학
3	49	김영철	고려대	철학
4	51	신일철	고려대	철학
5	52	이양기	영남대	철학
6	53	김팔곤	원광대	인문학부 철학전공
7	54	조병일	고려대	철학
8	55	여훈근	고려대	철학
9	55	안기성	고려대	교육학
10	57	윤사순	고려대	철학
11	57	황문수	경희대	철학
12	58	박인웅	부산대	문헌정보학
13	59	이강수	연세대	철학
14	60	정대현	이화여대	철학
15	60	강신석	부경대	교양
16	60	홍기선	고려대	신문방송
17	60	원갑희	목포대	미술학부
18	61	이길우	고려대	철학
19	61	정인재	서강대	철학
20	61	김형관	고려대	교육학
21	62	이진표	대불대	
22	63	권창은	고려대	철학
23	63	이상백	건국대	철학
24	63	송휘칠	경북대	윤리교육
25	63	김승택	강원대	철학
26	65	김성진	한림대	철학
27	65	김병채	한양대	철학
28	65	박용수	강원대	신문방송
29	66	이선관	강원대	철학
30	67	이광래	강원대	철학
31	67	이권녕	광주대	신문방송

- 63) 이 명단은 고대 철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국 또는 외국의 대학에서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하셨던 분들의 명단이다. 학부 학번이 확인되지 않은 대학원 교우의 경우 ‘원’이라 표하고, 괄호 안에 박사학위 취득 년도를 적었다. 학위 취득 년도조차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략 추정된 연배에 입각하여 배열했다.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작업했기 때문에 이 명단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오기, 누락 등의 결함이 있을 것인데 차츰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보완을 위한 정보를 필자에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32	67	김용옥	고려대	철학
33	68	송갑준	경남대	철학
34	68	윤석홍	단국대	영상학부
35	69	한동원	강원대	영상문화학
36	69	남 청	배제대	철학
37	69	강윤중	한국교원대	교육학
38	70	안건훈	강원대	철학
39	71	고재욱	강원대	철학
40	71	이애희	강원대	윤리교육
41	71	정대환	전북대	철학
42	71	박종렬	동신대	신문방송
43	72	남상호	강원대	철학
44	72	김정규	성신여대	심리학
45	73	김학권	원광대	철학
46	73	장두만	성서침례신학교	
47	74	윤평중	한신대	철학
48	74	임홍빈	고려대	철학
49	74	이승환	고려대	철학
50	74	장세호	경성대	윤리교육
51	74	황종환	한남대	철학
52	74	정영훈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 계열
53	75	김왕연	한남대	철학
54	75	박성수	해양대	유럽학
55	75	윤천근	안동대	철학
56	75	이재영	조선대	철학
57	75	권순철	日本 埼玉大學	교양학부
58	75	김명권	서울불교대학원	자아초월상담학
59	76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
60	76	김우영	전주교대	윤리교육
61	76	최용철	전북대	윤리교육
62	77	임규정	군산대	철학
63	77	이효걸	안동대	철학
64	77	양성만	우석대	심리학
65	77	유권종	중앙대	철학
66	78	김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67	78	하중호	고려대	철학
68	78	이동철	용인대	중국학
69	78	주영흠	총신대	교양

70	78	김문용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71	79	최희봉	강원대	철학
72	79	정영기	가톨릭관동대	기초교육대학
73	80	이영의	강원대	물리학과HK
74	80	김종국	경인교대	윤리교육
75	81	김낙진	진주교대	도덕교육
76	81	홍원식	계명대	철학
77	81	김창래	고려대	철학
78	81	김정현	원광대	철학
79	81	김용현	한양대	철학
80	81	최원배	한양대	정책
81	82	오상무	고려대	철학
82	82	이덕진	창원전문대	장래지도
83	82	김형찬	고려대	철학
84	82	김병환	서울대	윤리교육
85	82	박병철	부산외대	영상미디어학
86	82	김명식	진주교대	도덕윤리교육
87	82	엄석인	일본 야시마학원대	가정교육과정
88	82	이유선	서울대	기초교육원
89	82	황설중	대전대	교양학부
90	83	최준호	경기대	교양학부
91	83	박영옥	숙명여대	교양학부
92	84	손병석	고려대	철학
93	84	유동환	한신대	디지털문화콘텐츠전공
94	84	김성환	군산대	철학
95	84	윤대선	경기대	교양학부
96	84	권수현	성신여대	윤리교육
97	84	이진남	강원대	철학
98	84	김성환	군산대	철학
99	84	유동환	건국대	문화콘텐츠
100	84	이윤경	카나타 토론토대	Sociology and Asian studies
101	85	박학래	군산대	철학
102	85	양대중	건국대	철학
103	85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04	86	김용수	경북대	윤리교육
105	86	임건태	우송대	교양교육부
106	86	김경호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107	87	김미영	서울시립대	철학

108	87	진시원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109	88	여영서	동덕여대	교양학부
110	88	한광희	부산외대	창의인재학과
111	88	김태형	송실대	정치외교
112	93	권영우	외대	철학
113	94	김동현	한국교통대	교양학부
114	95	성창원	고려대	철학
115	95	양순자	전남대	철학
116	원	한기두	원광대	철학
117	원	송천은	원광대	철학
118	원	백승균	계명대	철학
119	원	은정희	서울교대	윤리교육
120	원	박정근	외대	철학
121	원	김경재	한신대	신학
122	원(87)	고강옥	부경대	사학
123	원(87)	박인성	전주대	교양학부
124	원(88)	김기현	전북대	윤리교육
125	원(91)	이일수	군산대	철학
126	원(91)	박태원	울산대	철학
127	원(91)	유초하	충북대	철학
128	원(93)	오진탁	한림대	철학
129	원(93)	구춘수	공군사관학교	
130	원(94)	손병옥	경상대	윤리교육
131	원	공병혜	조선대	간호학
132	원(95)	노희천	순천대	철학
133	원(97)	김종국	경인교대	윤리교육
134	원(01)	강춘화	덕성여대	중문학
135	원	주광호	동덕여대	교양교직학부
136	원	홍성민	전주교대	윤리교육과
137	원	김성한	숙명여대	교양교육원
138	원	이 찬	한림대	철학
139	원	박준용	충남대	자유전공학부
140	원	조종화	국민대	교양학부
141	원	박일호	전북대	철학
142	원	고현범	부산외대	교양학부

〈별첨 자료 3〉 브레멘대 — 고려대 학술 교류

회수	학회 명	일시 장소	발표자	논문 제목
1회	세계화 시대의 문화와 의사소통 Philosophies of Cultures	2002. 10 서울	M. Nadig	Cultures on Move: Transculturality as a Concept of Cultural Science
			S. Freudenberger	Meaning and the Possibility of Transcultural Communication
			H. J. Sandkühler	Cultures of Knowledge, Pluralism and Foundational Rights
			G. Mohr	The Concept of legal Culture
			C. v. Villiez	Cultural Integrity and Human Rights. A four-level-model of legal culture
			김창래	Verstehen zwischen anderen Kulturen. Eine formale Betrachtung über die kulturelle Einheit und Vielheit
			정인교	On Vagueness
			임홍빈	Skeptical Culture and its Implications
			이승환	Asian Values and Confucian Discourse
			조성택	A Buddhist Approach to the Diversity and Unity of Buddhist Doctrines
2회	트랜스컬처의 세계에서의 합리성 Rationalities in the Transcultural World	2003. 07 브레멘	임홍빈	The Problem of Tragic Consciousness from a transcultural Perspective
			S. Freudenberger	Epistemic Authority
			H. J. Sandkühler	Pluralism, Cultures of Knowledge, and Transculturality
			이승환	Dialog between Liberalism and Confucianism
			조성택	On Buddhist Engagement with Society
			C. v. Villiez	Transnational Rationality. Public Reason and the Democratic Peace
			김종국	The Golden Rule in Eastern Philosophy
			U. Liebert	European Constitutionalization. Towards a transnational public Sphere
			G. Mohr	Public Reason and the Idea of Justification

3회	얇의 문화 와 정치 문화 The Culture of Knowledge and Political Culture	2004. 10 서울	G. Pasternack	Der Begriff der Doxa in Phänomenologie und Fundamentalontologie
			B. Frischmann	Ironie als Rationalitätsform: Schlegel, Nietzsche, Rorty
			S. Freudenberger	Authority and the Power of Judgement
			C. v. Villiez	On the very Idea of Transcultural Morality
			G. Mohr	Humanitäre Intervention: Begriff and Legitimität
			김창래	Vorurteil und Aufklärung. Laufen die Geschichtlichkeit des Wissens und die Autonomie der Vernunft zuwider?
			이승환	Civil Society and Cyber Public Space in Korea
			손병석	Polis and Cosmopolis
			조성택	Buddhism as Ecology?
			임홍빈	Some Remarks on the Culture of Media
4회	인간성 — 동양과 서양 On Being Human — East and West	2005. 06 브레멘	임홍빈	Die Zirkelstruktur der menschlichen Selbstbestimmungsversuche
			김창래	Bild und Bildung. Grundbegriff einer philosophischen Anthropologie
			황설중	Scepticism and Being Human
			이승환	The Confucian View of embodied Virtue and authentic Body
			손병석	On Being Human from Perspective of Shame (aidos)
			최준호	Naturschönheit und Kultur
			G. Pasternack	Der Mensch — Teil oder Zwischen? (Goethe und Heidegger)
			B. Frischmann	Menschsein als Möglichkeit
			S. Freudenberger	Man is a Sign
			H. J. Sandkühler	Menschsein — Weisen des Sehens und Gestaltens von Welten

에르푸르트대 — 고려대 학술 교류

회수	학회 명	일시 장소	발표자	논평자	논문 제목
1회	Philosophy of Emotions	2012. 10 에르푸 르트	이승환	G. Löhrer	Meaning of Body in the Confucian Tradition
			Yang, Sunny	A. Burri	Emotion, Perception and Perspective
			소병일	B. Frischmann	Beyond the dualism of emotion and reason : Hegel's philosophy on the concept of emotion
			성창원	H. N. Pröbsting	The Appeal and Limits of the Role of Emotions in Friendship
			고현범	C. Held	Pathology of Emotion : The Concept of Emotion and its Contour in Kant's Philosophy
2회	On Reason(s)	2013. 9 서울	G. Löhrer	성창원	The Davidsonian Challenge to the Non-Causalist : Reason and Rationalization in Common Sense Action Explanation
			A. Burri	박병철	Kant and Wittgenstein on Philosophy and A Priori Knowledge
			C. Held	정인교	Reason and the Idea of an Independent Reality
			B. Frischmann	임홍빈	Reason in Fichte's Concept of Right
3회	Happiness and Goodness	2015. 10 에르푸 르트	오상무	W. Franzen	The Individual-based Pluralistic Theory of Well-being
				C. Held	
			임홍빈	A. Burri	Will and the Problem of Self
				B. Frischmann	
			성창원	G. Löhrer	Can the Buck-Passers Account for the Agent-Relativity of Good?
				C. Bock, M.A	